

실험 타이포그래피 관점에서의 부적의 조형성

A Study on the Form of Charms with the Attributes of Experimental Typography

정 성 환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김 민 호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본 논문은 전북대학교 산업디자인개발연구소지원으로 연구되었음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이론적 고찰

- 2-1 상징으로서의 문자
- 2-2 문자의 발달
- 2-3 실험타이포그래피의 개념
- 2-4 실험타이포그래피의 형성과정
- 2-5 부적의 정의 및 개념
- 2-6 부적의 발생과 역사
 - 1) 원형 상징물 전용의 주술
 - 2) 가공도구 전용의 주술
 - 3) 목적물 제작의 주술
 - 4) 장신구로서의 부적 주술
 - 5) 색채와 주술
- 2-7 기록으로 본 부적의 역사
 - 1) 단군왕검의 大符印
 - 2) 삼국시대의 부적
 - 3) 고려시대의 부적
 - 4) 조선조의 부적
 - 5) 다른 나라의 부적

3. 실험타이포그래피와 부적의

조형적 특징에 의한 유형 분류 및 분석

- 3-1 형태적 특징에 의한 분류
- 3-2 표현(구성)형식에 의한 분류
- 3-3 실험타이포그래피에서 나타난 상징성
- 3-4 부적의 상징성
- 3-5 부적의 기호적 암시성
- 3-6 조형적 특징에 의한 유형 분석 결과

4. 결 론

요 약

부적에는 고대의 다양한 기호나 그림, 원형문자가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도 쓰여지고 있다. 이는 체계화된 문자와 조합되어 다양한 표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도 전통적인 방법이 고수되는 반면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부적은 일반적 견해로 생각하는 실험 타이포그래피 만큼이나 논리적이며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다른 기호나, 상형문자, 그림 및 유사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각각의 요소들은 상징적 심볼 및 연상성, 글의 해체성 등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타이포그래피의 실험적 성격을 더욱 실험적으로 표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부적에서 배워야 할 해체와 구성작업을 회화적 타이포그래피 관점으로도 눈여겨 볼 점이 많았음을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부적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징을 실험 타이포그래피와 비교, 분류, 분석하여 부적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징이 시각적 언어와 타이포그래피 표현으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적 조형 문화로서 부적이 형태적 물성이 가지는 시각 이미지에 대한 재인식과 그 가능성에 대한 모색은 타이포그래피의 서구적인 고정된 틀을 벗어나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Abstract)

The Charm is composed of various kind of ancient signs, letters and systematic characters so that they delivers messages with many expressions.

They,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typography, are more logical and experimental than we generally think. Also, they have meanings and attributes as characters do, in which there are symbols, hieroglyphs, pictures and other similar words. Each attribute diverse from symbolic meaning, associates to deconstruction of letters.

It is needed to review the experimental attributes of charms with the view of structural typography for potentialities of express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and classify the morphologic construction of charms so that we can find the possibilities of applying the attributes to visual languages and typography.

Future study seems to be extending the area of expressing of typography fit for our own culture, not for Western

Keywords:

Experimental point of View, Charms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문자란 말이나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적기 위한 일정한 체계의 부호로써 넓은 의미로는 시각적 기호를 통하여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관습적·규약적 체계를 말한다¹⁾라는 사전적 의미와 함께 문자는 영물(靈物)이었고, 주술이었으며, 존엄과 신비 그리고 제의(祭儀)가 함유된 경외의 대상이었다.

동양관이란 서양과 달리 사물이나 개념이 문자가 동일시되고, 신화적 언어관으로부터 출발된 것이었다. 이것은 상형글자 문화의 전통이자 특징일 수 있다.²⁾ 동양에서의 신화적 언어관의 한 표현으로서 부적이 '복을 빌고 재앙을 쫓는다는 주술물'이란 단순 개념 뒤에는 엄청난 시간의 시대적 배경과 인간을 싸고 있는 주변환경 및 우주와의 관계를 가지고 고대사와 연결되어 오늘날에 이어져 오고있으며³⁾ 현재까지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제작되어 보여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고대인의 한 집단이 창출한 문화가 고정불변하게 전수되어 현대까지 실용화되고 있는 것은 부적밖에 없을 것이다⁴⁾ 부적에는 고대의 여러 가지 기호나 그림과 원형문자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쓰여지고 있으며 문자와 다양한 요소들이 조합되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난 표현위주의 실험적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문자가 읽혀지는 기능으로서보다는 전체적인 형태의 표현으로 그 뜻과 의미를 전달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타이포적 실험은 이전부터 형태적인 요소들의 표현들이 있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부적에서 다양한 실험적인 형태의 표현과 의미 전달에서 실험 타이포그래피와 유사한 점을 발견하기는 어렵지 않다.

본 연구는 글자의 조형성을 강조한 개념으로 실험 타이포그래피와 부적이 표현사례를 통해 조형원리와 형태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실험타이포그래피와 부적이 내용으로써의 사상이나, 이념을 제외하고 시각적인 요소들의 공통점을 분석하여 부적이 가지고 있는 조형적 특징이 시각 언어와 타이포그래피 표현으로 응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비교분석 방법으로 이루어 졌으며, 분석 대상은 부적과 실험타이포그래피의 작품은 인터넷과 출판물을 통해 추출하였다.

전체적인 표현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실험 타이포그래피 작품과 부적을 각각 700개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를 백분율로 분석 정리하였다.

표현형태의 분류를 조형적 특징에 의한 유형분류로 형태적 특

1) 두산세계대백과사전 www.never.com

2) 안상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 연구(vol. 34), 한국 디자인 학회, 2000, p. 105

3) 김민기, 부적미술의 역사와 사상, 국립박물관 학술총서28, 한국민속담구, 1996, p. 74

4) 정태무, 부적 강좌, http://www.011-love.co.kr/index2_frame.htm

징 의한 분류, 표현형식에 의한 분류를 하였으며, 상징적 표현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험 타이포그래피와 부적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類似性)과 상이성(相異性)의 비교 분석을 통해 부적이 시각적 언어로서의 가능성을 파악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상징으로서의 문자

부적과 타이포그래피에 사용되는 핵심요소인 문자는 기호(sign)로서 언어적 기호(verbal sign)로 구분하지만 또한 상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즉, 극단적으로 추상화된 비언어적(non-verbal sign)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상징은 오랜 생활동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더 많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⁵⁾ 문자 또한 인류가 존재한 수만 년 동안 선화(線畵), 기호, 그림 등 간단한 의사소통의 수단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문자가 존재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문자를 사용하는 집단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하게 재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상징체계가 있어야 하며, 이 체계는 여러 사람들 사이에 합의된 것이라야 하며⁶⁾ 상징 속에서 시니피앙(프랑스어- signifiant:기표)은 시니피에(프랑스어-signifie:기의)를 지시하기 위해 다른 시니피앙의 자리를 차지한다. 상징은 형상성이 강한 구체적인 시니피앙과 이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추상적인 사실이나 가치 사이에 상호 관계를 수립하는데, 간접적인 관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그 의미가 정확하게 해석되기 위해서는 문화를 통해서 습득하여 공유하고 있는 연상성(association)⁷⁾ 또는 연관성을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유사성이 있거나 담화상황이 명백하게 정해져 있어야 한다.⁸⁾ 문자의 상징은 구어보다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하며 문화를 나타내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2-2. 문자의 발달

2만 2,000년 전 라스코와 몇몇 동굴벽화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1만 7,000년 뒤 인류는 가장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문자를 만들어 낸 것이다. 사람들은 인류가 전해 오는 이야기를 보존하기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문자를 만든 배경에는 그보다 훨씬 더 세속적인 이유¹⁰⁾ 즉 주술적이거나, 신분적 영향력, 기록의 편리성의 영향으로 변천되어왔다.

선사시대부터 인류는 쓰기기호나 그림기호, 새김기호 등을 이용하여 의사소통을 추구해 왔다. 어떤 '그림기호'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문자가 되었다. 그러나 문자 이외의 기호 또한 문

5) Carl G. Ljungman, Dictionary of Symbol II, W.W. Norton & Company, 1991, p. 5

6) 조르즈장, 이중언어, 문자의 역사, 시공사, 1995, p. 13

7) 시니피에 (프랑스어signifie) (언어학) 소쉬르의 용어의 하나. 말에 있어서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 기의(記意), 시니피앙 (프랑스어signifiant) (언어학) 소쉬르의 용어의 하나. 말에 있어서 귀로 감지할 수 있는 외적(外的) 형식. 말이 소리와 그 소리로 표시되는 의미로 성립된다고 할 때 소리의 면을 가리킴. 기표(記標), 이후 국어사전, <http://kr.kordic.yahoo.com/>

8) 요소적 경험이 어떤 법칙에 따라 결합하여 표상적 심상(表象의心像)이나 개념으로 복원(復元)되는 과정, 두산세계 대 백과사전

9) 로랑스 보댕, 광고의 이데올로기적 메커니즘, 1975, p. 90

10) 조루주 장, 앞의책, p. 11

자기호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그림기호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¹¹⁾ 원시문자는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어 왔으며 문자의 변화를 피하게 되었다. 원시시대의 그림문자들은 생존을 위해서 제작되었고 실용성과 제식의 목적으로 창작되었으며 그림문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화했다. 첫째, 그것들은 회화예술(pictorial art)의 시초였다. 세상의 사물과 사건들이 세기가 지남에 따라 점차 신빙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 둘째, 그림 문자들은 또한 문자로 진화해 갔다. 이미지들은 그 원래의 회화 형태를 지니고 있었던 많은 간에 궁극에 가서는 구어 음을 나타내는 기호로 되었다.

구석기 시대의 도형들은 점차 추상적으로 되어 갔으며 최소한의 선으로 표현되었다. 구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며 어떤 암석 조각 및 그림 문자는 거의 문자와 다를 바 없는 정도로까지 단순화되었다.¹²⁾ 그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수렵에서 동물의 능가하는 힘을 얻고 성공을 빌기 위한 것들이었다.

설형문자가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널리 퍼져 나가고 있을 때 인근의 이집트와 멀리 떨어진 중국에서는 다른 문자체계가 발달하고 있었다. 그들은 문자를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고대이집트인의 문자체계를 가리키는 상형문자(hieroglyph: 그리스어 hieros와 gluphien에서 유래한 것으로 hieros는 '신성', gluphien은 '새기다'라는 뜻)는 실제로 '신들의 글자'를 가르쳤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상형문자의 설형문자는 여러 세기 전 아라비아 문자로 대체된 반면, 중국의 문자는 단 한번도 그 모습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어디서나 그 첫 시작은 같은 모습으로 전개되었다. 수메르인, 이집트인, 히타이트인, 크레타인, 한자의 시작은 그림 문자였다. 즉 그림문자를 단독으로 쓰거나 아니면 조합해서 사용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주 다른 문명권에서 발달했어도, 각 지역의 문자 체계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일부 그림문자들은 그 형태가 아주 유사하다.¹³⁾

문자가 체계적으로 발달하면서 구전과 전승들이 구체적인 수단에 의해 조직적으로 기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읽고 분석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러한 분석에는 인간의 지능과 인식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잠재적 가능성이 음절 문자의 체계 내에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필사본에서 대량으로 복제가 가능해지자 문자가 특정인들의 소유에서 벗어나 일반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져 새로운 문자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2-3. 실험타이포그래피 개념

문자를 언어 전달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실험적 시각

11) Leroi-Gourhan A. Prehistoire de l'æetocidtrial, Mazenod, 1978, p. 10
 12) 필립스 B. 맥스, 월간디자인 편집부 역, 그래픽디자인의 역사, 디자인하우스, 1985, p. 5
 13) 조루즈장, 앞의책, pp. 25- 27

전달 재료로 사용한다. 문자와 타이포그래피 요소들이 보다 자유롭고 역동감 있게 표현되어 심리적, 미적 긴장감을 유도하는 경향이 짙어 매우 흥미로우며 시적, 철학적 분위기를 표현한다.

실험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이라면 읽고 이해해야 한다는 활자의 기능이 무시되기도 하며, 한 개의 문자가 지나는 형태를 시각적 심벌로 보기도 한다. 문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모이고 흩어지는 데서 어떤 추상적 이미지를 추구하며, 문자를 재료로 하는 추상예술이 되기도 한다.

로베르 마생(Robert Massin)은 활자와 사진 이미지를 결합하여 읽고 보는 타이포그래피에서 탈출하여 말하고 듣는 실험적 타이포그래피를 시도하기도 했다. 현대예술은 다분히 실험적인 경향, 어떤 이성적인 한계성에 매이지 않고 어떤 틀을 벗어나고자 시도하는 경향이 짙어 문화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반사회적 취향을 띠게 되었고, 무분별하고 과도한 소비주의와 의식적 관습 그리고 기능주의를 탈피하고 있다¹⁴⁾ 실험타이포그래피는 사상과 이념보다는 자유로운 생각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지면구성, 거침없는 묘사를 통해 문자를 읽는 형식을 탈피하여 시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4.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형성과정

20세기에 출현한 미래파, 드 스틸, 다다, 구조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던리즘 등의 예술과 디자인 운동들은 제 현상에 대한 도전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반응이었고, 이들은 타이포그래피 발전에 중요한 진보를 가져왔다.

20세기의 현대 타이포그래피 발전사는 회화, 시, 건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은 입체파와 미래파 시의 융합으로 인해 탄생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09년에 미래파를 주창한 이탈리아의 필리포 마리네티는 그의 <미래파 선언문>에서 "우리는 모험과 대담한, 그리고 반항의 정신은 우리 시의 본질적 요소가 될 것이다¹⁵⁾라고 선언했다.

독일의 쿠르트 슈비터스(Kurt Schwitters)는 다다의 한 분파인 <메르츠 Merz>에서 색과 형태 그리고 질감을 중첩시켜는 타이포그래피 콜라주를 실험하며 시의 각 요소인 낱자, 음절, 단어, 행 등의 상호작용을 연구하였다. 이런 사조들은 시대적인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문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전개해 나갔다.

1919년에 바우하우스(Bauhaus) 타이포그래피의 중요한 변혁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새로운 재료, 사진 몽타주와 포토그램, 그리고 동적 움직임, 빛, 투영성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시각적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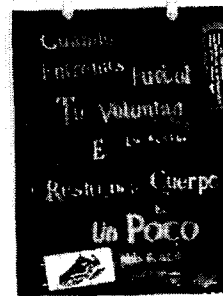


그림 2 Nike Air Santos 인쇄광고 : 모든 서체와 이미지는 X-ray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다. 아트 디렉션: Niko Courtelis

14) 석금호, 타이포그래픽디자인, 미진사, 1999, p. 6
 15) Maggs P: A History of Graphic Design, Vam Nostrand, Reinhold, 1983, p. 276. , 원유홍, 실험타이포그래피의 교육 프로그램 연구, 대한 디자인학회 36호, 2000, p.37, 재인용

법을 개발하였다. 포스터에서는 사진의 확대, 왜곡, 제거, 이중 노출 등의 기법과 강렬한 색채의 활용을 강조하였다.¹⁶⁾

60년대에 들어서도 기존의 질서에 반기를 드는 여러 가지 타이포그래피 실험이 꾸준히 행해져왔다.

이제 타이포그래피의 전통적 스타일과 새로운 실험들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유행을 넘어서, 작업의 성격에 따라 공존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5. 부적의 정의 및 개념

부적(符籙)에서 符는 문자 그대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원상복귀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종교적으로 말한다면 원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력으로 구원되되 중생(重生) 하듯 본래 청정한 인간이 번뇌망상에 휩쓸려 생사에 유전하다가 還滅流轉하여 涅槃大覺을 성취하는 것처럼 쪼개진 대쪽이 제짝을 만나 원상복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적(籙)은 부(符)에 따르는 문자로서, 초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람의 감정에 의해 부(符)의 활용성이 생기며 그 성질에 알맞는 문자가 부에 따르는 의미로 적(籙)이라 한다.¹⁷⁾



그림 4 원시인들은 동물들을 많이 잡게 해달라는 소망을 빌기 위해 바위에 그림을 새겼다.

부적의 사전적 의미로 도교(道敎) 등 민간 신앙에서 하는 일로, 악귀와 잡신을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해 붉은 글씨 모양의 것을 아룻하게 그려 몸에 지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 신부. 변한 말 부작(符作)¹⁸⁾ 이라 말하며, 신을 표명하는 물체적 상징보다는 물체의 고유의 자산인 비인간적인 힘의 근원¹⁹⁾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오(守)(Omamori)라고 하는 몸에 지니고 다니는 우리의 부적과 같은 의미의 것이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부적과는 형태가 다르며, 신의 말씀을 적는 글이라는 의미의 (神代文字:KamioMojji)가 있고, 일본 전국의 신사에 많이 남아 있다고 한다.

부적이 '복을 빌고 재앙을 쫓는다'는 주술물'이란 단순 개념 뒤에는 엄청난 시간의 시대적 배경과 인간을 싸고 있는 주변 환경 및 우주와의 관계 그리고 이에서 비롯되는 하늘의 섭리와 인간연원의 무서운 힘 그런 것들이 고대사와 연결되어 오늘에 이어져 오고 있다.²⁰⁾ 부적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인간이 가진 신념의 매력인 동시에, 대자연의 신비를 분석하는 지혜의 사상을 가지고 변함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부적은 대부분 황색바탕의 종이에 붉은 경면주사로 쓰여지는 예로 다양한 형태의 부적이 있는데 그 예로서의 총체적 호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좋은 그림의 액자, 민화, 좋은 붓글씨, 간판, 마크, 마스크트, 동물, 식물 등등이 모두 부적의 작용을 한다. 부적은 인간의 간절한 소망이 발현되도록 하는 매개체 역

할을 하는 것이다.

2-6 부적의 발생과 역사

1) 원형 상징물 전용의 주술

자연물을 원형 그대로 이용하면서 부작의 모습을 갖추는 기원은 구석기말 '제3 아빙기의 마들레느 문화(B.C. 4~B.C. 1만년)'에서 이미 나타났는데 골각기에 수렵의 대상이었던 순록이나 주술적인 기하형 무늬를 刻畵한 데서 찾아 볼 수 있다.²¹⁾

또한 '아젤리아(Azelia)의 적석'이라 부르는 달걀 크기의 돌에 다 붉은색 물감으로 소용돌이 무늬를 그려 넣은 '혼에돌'²²⁾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소용돌이 무늬(그림4)는 조선조의 부적에서 영부도(靈符圖: 천도교에서 발행)로 그려졌으며 官災



동심원운(同心圓紋)

소멸과 소원성취의 중심무늬로 나타

나 있는데 이 무늬는 사람의 앞날에

다칠 길흉을 조작할 수 있는 신성한

상징으로 사람 머리의 정수리에 있

는 것과 같고 우리는 이를 가마(鶴

의 정수리는 붉다하여 丹鼎)라 부르며 《삼국지》 위지 동이전

에 나오는 마한의 성역 소도(蘇塗; 술터의 音寫이며 聖域의

옛말)²³⁾와 직결된다.

2) 가공도구 전용의 주술

괘석기나 간석기를 만들어 썼던 선사시대의 무기나 생활 도구들이 그 기능에 유감하는 주술로²⁴⁾ 부적이 되었는데 《세종실록》 25)에는 어의(御醫)의 건의에 따라 돌도끼[雷斧], 화살촉[雷箭], 돌칼[雷劍], 뼈바늘[霹靂鍼], 작살[霹靂楔] 등이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것에 효과가 있다 하여 전국에서 수집한 기록이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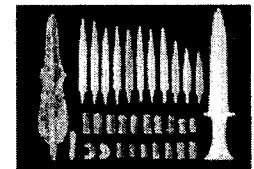


그림 6 석기시대 석기 무기들

이는 옛날 풍속으로 이를 지니면

사기를 쫓아 아이를 못 낳는 여자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도 임신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에서 연유된 것이라 보인다.



그림 7 이 부적은 부처님 앞에서 두 사람의 결합을 상징하는 형상을 담았다.

21) 金聲近 外, 《世界的 歷史》. 世紀出版社. 1978. p. 81
 22) 김민기, 앞의 책, p. 87
 23) 김민기, 앞의 책, p. 75
 24) 유감주술 類感呪術 (homeopathic magic): 모방주술(模倣呪術)이라고도 한다. 특정한 개인에 대하여 저주하거나 위해(危害)하고 싶을 때 나무·종이 등으로 인형을 만들어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저주하는 말을 퍼붓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두산세계 대 백과사전
 25) 《世宗實錄》 卷 92, 世宗 23년 5월, 卷 103, 世宗 26년 3월.

16) 원유홍,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사 연대기, 디자인 연구 제7호, 상명대학교 디자인 연구소, 1999, pp. 19~20
 17) 한정환, 현대사회에 있어서 부적에 대한 인식, 국립민속박물관 연구보고서, 1996, p. 104
 18) 아후 국어사전, http://kr.kordic.yahoo.com/
 19) The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2001.
 20) 김민기, 앞의 책, p. 73

됨에 따라 부인(符印)이 만들어지고 인쇄술과 판화의 기원도 이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4) 장신구로서의 부적 주술

미술의 뿌리를 원시 미술에서 찾아보면 본질적으로 주술과 장식 유희본능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조선조 여인들의 '노리개'는 이러한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다. '호랑이 발톱 노리개'는 그 대표적인 것이고 한복의 남자용 마고자 단추는 호박(琥珀)으로 만드는데 이는 호랑이의 혼백이라는 호백(琥魄)의 와전이며 어원은 호랑이의 혼백이 갖는 옥이라는 뜻으로 악귀를 쫓는 주술적 역할도 한다. 구리 반지를 끼면 허리가 아프지 않고 옥반지를 끼면 몸이 가볍다든지 하는 말을 주변에서 흔히 듣는데 이 또한 유감주술(類感呪術)로 보인다. <본초강목> 금석부27에는 장신구에 쓰이는 아래 금, 은 보석들의 약효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니고 있어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한방에서 약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은 하책(下策)이요, 마음을 다스려 병을 예방하는 것이 上策이라 <동의보감>은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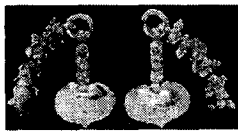


그림 8 금으로 된 메달 백제

5) 색채와 주술

부적의 색채는 붉은 색을 연상시키는데 지금부터 십 만년 전에는 이미 빨간색 안료의 채색만이 아니라 옷의 염색까지도 '북경원인'의 후예로 보이는 '북경 산정동인'이 고안해 낸 사실을 감안한다²⁶⁾면 부적을 빨간 안료로 그리기 시작한 것은 고대 때부터 내려온 일이라 생각된다. 빨간색 안료의 사용을 불의 유감주술(類感呪術)로 본다면 불의 사용이 '아술²⁹⁾ 중기(25만년전 무렵)'에 일어난 생활의 대혁명으로 이때부터 인류의 조상은 다른 동물에 대한 생존의 우위를 결정적으로 누릴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잡귀를 물리치는 데 빨간색을 상징으로 썼으리라 추정되는 것이다.³⁰⁾

2-7. 기록으로 본 부적의 역사

1) 단군왕검의 천부인(天符印)

<삼국유사> 고 조선조에는 환인(桓因)이 아들 환웅(桓雄)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내수천부인3개(乃授天符印 3箇)를 주었다는 기록이 있는데³¹⁾ 여기서 '천부인'은 후에 왕권의 상징으로 다음 왕에게 물려지는 왕새(玉璽)를 뜻하며 이 도장 즉, 천부인(天符印)이 찍힌 문서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장수(별칭 神)들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며 이 도장이 찍힌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신의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징적 신의(信表)가 되는 것이다.

2) 삼국시대의 부적

<삼국유사> 처용랑과 망해 사조에는 "내가 공의 아내…… 지금 이후로는 공의 얼굴을 그린 것만 보아도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기로 맹세하겠습니다." 이 말에 따라 처용의 모습을 문에 붙여 사기를 물리치고 경사스런 일을 맞는 부적으로 삼은

기록이 있으며 조선왕조 <성종실록>에는 전라도 지방에 옛 백제풍의 紙錢을 유교식의 神主 대신 사당에서 소각하여 선조 제사를 지냈다 하여 벌을 준 기록³²⁾이 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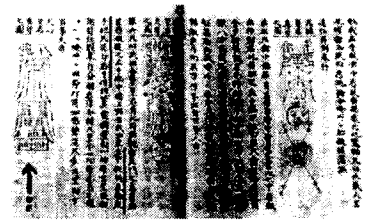


그림 9 天心皇君 直符之圖

는데 이 지전은 지금도 절에서 부적으로 발행하는 곳이 있으며 죽은 사람의 노자 돈으로 저승길을 위해 관속에 넣어 준다. 이 지전이 본래 백제의 유품으로 저승에 가있는 영혼을 집으로 부르기 위해서도 사용[家選招魂]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고려의 부적

오늘날 쓰이고 있는 부적의 대부분은 고려 이전에 이미 사용되었으리라 보이지만 분명한 연대가 나타난 것은 용주사의 탑속에서 나온 것으로 1268년(至元五年二月)에 시주가 넣은 금강경과 다라니주문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또 <고려사>에는 닭 그림[畫鷄] 부적을 왕의 요에 몰래 넣었다가 폐행(廢幸: 아침해서 사랑을 받는 일)의 죄를 물어 관계된 주부와 내시가 참형되었다는³³⁾ 기록도 보여 왕가에서까지 주술적인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겠다.

4) 조선조의 부적

조선조의 부적은 실물이 많이 남아 있고 이것들은 불상의 복장 속이나 탑, 건축의 상량, 고 가구의 안 폭, 무덤 속의 부장품 속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또 <동의보감>에는 여러 종의 부적이 치료 및 병의 예방으로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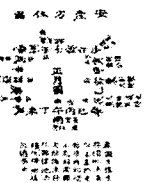


그림 10 임신 8개월부터 북쪽 벽에 붙여둔다는 <동의보감>부적

5) 다른 나라의 부적

다른 문화권에서도 부적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 부적의 형태적인 특징은 다르지만 그 속에 나타내는 수많은 심상(image)들 속에 초월적 세계를 감지하거나 영적인 감응을 얻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권은 우리나라의 부적과 다른 형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호나 그림으로 그 형태를 표현하고 있었다.



인간의 심령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모슬렘계의 기호 부적은 인간 내면에 잠재하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깨닫게 한다. 이러한 마술적 행위에 해당하는 부적들은 인간이 방상하고 있는 기(氣)의 파동을 높혀서 우주 에너지와 교류하여 물질이 지닌 체계적인 전자기적 현상에 적용하려는 시도이다. 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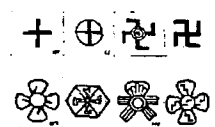


그림 11

은 20개의 십자 도형판'은 멕시코 유적에서 발견된 도형 부적들을 모아 제임스 처치워드(성직자)가 임의로 구성하여 '천지창조의 원동력과 원리' 라고 하였다.



그림 12

26) 김민기, 앞의책 p. 76

27) 李時珍, 《本草綱目》金石部 第八卷, pp. 1~50.

28) 金聲近 외 2명, 《世界の歴史》1, 世紀出版社, p. 511.

29) 전기구석기인 아슐리안형(Acheulian形) 주먹도끼를 대표적인 특징유물로 하는 문화. 자료출처 두산세계대 백과 사전, www.naver.com

30) 김민기, 앞의책, 1996, p. 78

31) 一然著 權相老 譯, 《三國遺事》, 東西文化社, 1977, p. 64

32) 《成宗實錄》卷 142, 9p, 成宗 13年 6月, 19年 3月(卷 p. 214, p.1~2).

33) 《高麗史》世家卷十八 毅宗二, 十五年辛巳九月 p. 276.

그림(12)은 청동기 시대(핀란드), 13세기(프랑스), 19세기(영국)에 사용되었던 미로형 부적은 하나의 상징적 세계를 통하여 깨달음을 향한 존재의 내면의 길을 체험하도록 장치되어 있다.³⁴⁾



그림13

그림(13)은 시베리아 무당들이 땅과 태양을 연결시켜 준다고 믿고 있는 부적이다. 그 아래는 사방 위를 상징하여 신들에게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주었다는 코요테의 신화를 그린 나바호족의 그림 부적이다. 초자연적인 모든 것들은 숨겨 놓은 상징의 세계이다.

그림(14)은 짝사랑하고 사람이 있을 때 우선 'TOOGRAS'라는 문자를 종이에 쓰고, 해가 떠오를 때 그것을 태양에 비치고 <투 구라 스>라고 기도하면 진정이 상대에게 전해지고 행운의 기회가 온다는 서양 부적이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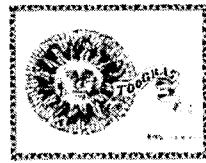


그림 14

6) 부적의 사상과 배경

역사상의 모든 미술이 그 시대의 산물이라 한다면 부적도 예외일 수 없으며, 다른 점이 있다면 토착화된 기층문화³⁶⁾의 전통 속에 융해된 것이어야 비로소 부적의 내용으로 등장될 수 있다. 부적이야말로 뿌리깊은 기층문화의 전통을 유지·계승하고, 외래문화도 일단 토착화되면 그 안에 포용하는 무속미술의 꽃이라 하겠다.

부적은 만물에 영(靈)이 있다는 원시적 애니미즘(animism)이나 수호신으로서의 토착적 모습과 무당에 의한 念力이 부여된 '주술물' 즉, 샤머니즘적인 것이거나 모두가 유감 주술적인 방법에서 공통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만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일이 한가지 이치로 통한다는 '삼재일치사상'은 부적의 격을 단순한 민간 신앙적 종교차원에서 역사, 철학, 의식, 군사학, 천문학, 기상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고차원의 학문적 모습도 지니게 되었다.

3. 부적과 실험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특징에 의한

유형 분류 및 분석

디자인은 조형적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디자이너와 수용자는 조형 언어로서 의사를 소통한다. 조형언어는 문자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³⁷⁾

부분의 기계적 집합으로서의 구조 전체에 대해서는 부분의 활동은 전체의 상태에 대응하는 기능의 원리와 통일성, 균형, 규모와 비례, 리듬 등의 조형 원리, 형태와 색채, 질감 등의 조형 요소들이 동세, 대칭, 대비, 균형, 변화 등의 구성원리, 형태(시각형태)와 구조(미적 구조)는 근본적으로 '표현(expression), 즉 조형에 의해 하나의 온전한 유기체로서 완성되어지는 조형의 지각으로 분석하였다.

부적은 대체적으로 실험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8가지의 형태적 특징과 어느 정도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34) www.011-love.co.kr

35) 이메일 정보통신, www.amui.co.kr

36) 서민 내지 상민(常民)에 의하여 형성된 기저적·계속적 문화.

37) 조열, 김지현, 형태 지각과 구성 원리, 창지사, 1999 p. 31

1. 탈 정형화 스타일에 의한 개성화
2. 가독성과 이독율(易讀) 중심의 전통적 레이아웃보다는 스타일 중심의 감각적 작품
3. 관찰시점의 다각화에 의한 동적 구성
4. 문맥 중심의 테스트 구조형성이 아닌 시각적 콘트라스트와 주된 단어 이미지의 연상 이미지 강화
5. 색상의 다양화와 풍부한 질감의 표현
6. 단어와 문맥의 심볼화에 의한 이미지업과 시각표현 강화
7. 비정형적 시각요소의 부각
8. 설명이나 묘사가 아닌 새롭고 독특한 형태로 재구성³⁸⁾ 등이 있다.

또한 실험타이포그래피에 비해 부적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분석적 파악을 거치지 않고도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비합리적인 소통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상징의 맥락에 있으면서도 쉽게 도식(圖式)화 되지 않는 모호성과 도식(圖式)에 틀을 벗어나 끊임 없이 탈주해 보이는 연상적 느낌을 준다. 그리고 내용의 구성을 보면 여러개의 문자가 배치된 하나의 그림이 암호화된 밀서의 문장으로 되어 암시적인 느낌을 주며, 어느 누구나 부적을 만들 수 없는 권위적 성격이 강해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원적인 힘을 믿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실험 타이포그래피와 부적이 가지고 있는 유사성과 상이성을 조형적 특징에 의한 유형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3-1. 형태적 특징에 의한 분류

부적과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각각의 요소와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지기 위한 것이며, 목적은 사람들에게 표현의도를 인식시키는 것이다.

나와 남이 서로 통하는 '공통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공통성 획득의 목표는 시각적 효과를 위한 조형요소들의 '구성(construction- organization)' 행위라 부를 수 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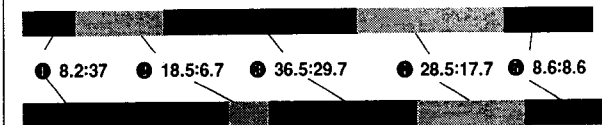
실험 타이포그래피와 부적 이미지를 전달하는 형태의 조형적 표현 경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그 특징의 분류 방법은 다양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보았다.

크게 구상적 형태를 강조한 것, 추상적 형태를 강조한 것, 문자를 위주로 한 것, 일러스트레이션 성격이 강한 것, 기호적 성격이 강조된 것으로 분류하였다.

분석결과를 도표로 보면

▷ 실험 타이포그래피 : 부적(%)

1. 구상적 형태를 강조한 것
2. 추상적 형태를 강조한 것
3. 문자를 위주로 한 것
4. 일러스트레이션 성격이 강한 것
5. 기호적 성격이 강조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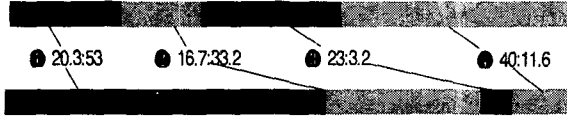
구체적 분석으로 전체적인 구성형태와 요소들의 구성형태를 분석한 결과를 도표로 보면

▷ 실험 타이포그래피 : 부적(%)

38) 김창식, 최근 시각디자인 실험적타이포그래피 강화 경향의미 유럽과 미국은 몇몇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39) 김춘일, 박남희 편역,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1, p. 65

1. 구상+구상 2. 구상+추상 3. 추상+구상 4. 추상+추상



1) 형태적 특징에 의한 분류 결과



그림 15 왼쪽으로부터 구상적 형태를 강조, 추상형태를 강조, 문자형식위주, 일러스트성적이 강한 것, 기호적 성격이 강한 것

형태적인 전체적인 표현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추출된 각각 700개 타이포그래피와 부적을 종합한 결과를 백분율 값을 내어 정리하였다.

위에서 분석한 것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전체적 형태 비율에서 크게 다른 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실험 타이포그래피는 추상형 강조가 우세한 반면 부적에선 구상형 강조가 두드러졌다.

위 결과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부적의 형태적인 특징은 각 요소가 동시에 요소들간에 상호 연관성을 맺고 전체 의미를 이루는 다원적 구성으로써 구상적인 형태 글자들의 반복과 배치, 왜곡을 통해 움직임이나 리듬감을 전달하고있으며 여러 글자들의 조합을 통해 하나의 그림으로 형상화하는 상징적인 형태 성이 강조되었다.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형태적 특징도 위의 결과와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었고, 여백, 부호, 문자의 중첩으로 생겨나는 질감 등 추상적이며 다양한 소재를 복합적 배열하였다. 부적이 정적인 면에 반해 실험 타이포그래피는 동적이 형태적 특성 가지고 있었다.

3-2 표현(구성)형식에 의한 분류



그림 16 위, 아래 대칭 비대칭 정형 비정형

형태와 색채, 질감 등의 조형 요소들이 동세, 대칭, 대비, 균형, 변화 등의 구성 원리에 의해 화면에 다양한 표정을 나타내게 되고, 이를 통해 보는 사람들은 간접적, 은유적 시각 메시지를 전달받게 되는 동시에 즐거움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40) 형태가 지각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대칭, 비대칭, 정형과 비정형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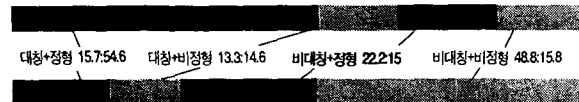
분석결과를 도표로 보면

▷ 실험 타이포그래피 : 부적(%)



이를 더욱 세분한 결과를 도표로 보면

▷ 실험 타이포그래피 : 부적(%)



1) 실험타이포그래피 표현형식에 의한 분류

▶ 비대칭 비정형이 지배적

▶ 중량감의 대비와 설정된 그리드를 깨뜨리고 대각선의 패선과 띠가 활자와 함께 사용

▶ 사상,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연상적 의미작용이 강조

▶ 개인적인 성향을 직관성과 유희성이 디자인에 두드러져 무작위 적인 배치를 자주 사용

▶ 크기, 자간, 글자의 배열의 형식을 탈피하거나 다른 캐릭터와 조화, 글자의

생략, 반복, 고의로 호리케 표현하거나 잘려 보이도록 한다든지 겹쳐서 인쇄하는 등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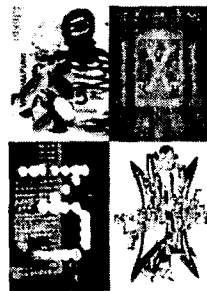


그림 17

2) 부적의 표현형식에 의한 분류

▶ 대칭과 정형의 구조가 지배적

▶ 구성적 표현으로는 새·물고기 등 동물과 태양, 인형(人形) 안면(顔面), 귀면(鬼面) 등이 있고, 추상적인 표현으로는 와문형 답형 또는 계단형 등으로 표현

▶ 글자로 된 부적에는 천(天), 광(光), 왕(王), 금(金), 신(神), 화(火), 수(水), 목(木), 용(龍) 등의 글자들이 교묘하게 형태가 비틀어진 채 표현.

▶ 글자는 주로 破字形이나 集字形 태를 가장 많이 표현

▶ 기를 모은다는 달팽이 모양의 기호나 만사 형통하게 한다는 X 자 형태의 기호.

▶ 강력한 신에 의하여 귀신이 꿈쩍 못하고 도망가거나 완전히 포박되어 움작달작 못하고 있는 유희적인 모



그림 18

양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3-3. 상징(형상)으로서의 형태구성에 의한 분류

피어스(peirce)에 의하면 상징은 기호와 지칭대상 사이의 관계가 자의적인 것으로 문화적 관습이라든지, 규약, 규칙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기호이다. 따라서 상징은 그것의 사용규칙을 배우고 그것이 속한 문화를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 해석과 사용이 용이하다. 따라서 언어나 수학적 기호 등은 대표적인 상징기호이다.⁴¹⁾

본 분석에서는 피어스의 기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실험 타이포그래피와 부적에 상징은 문자가 유상기호보다는 글자의 의미를 강하게 표출하는 경우를 상징에 따른 표현으로 분류하였다. (1)문자의 형태성을 강조한 경우와 (2)문자의 의미성을 강조한 경우로 나누었다.

상징적 형태로서의 분류해 보면

▷실험타이포그래피:부적(%)



1)문자의 형태성 강조

문자(상징적 기호)가 유상적으로 표현되었지만 글자로 해석됨으로써 상징적 의미가 강한 예이다.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의미적 특성을 강조한 표현이다. 문자는 조형언어로 인식되어 유상적 표현요소로 작용하지만 문자 본연의 상징 기호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2) 문자의 의미성 강조

문자가 문자로 읽혀짐으로서 상징기호의 의미를 가면서 구체적인 대상을 연상시킨다. 여기서 글자는 상징기호와 지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사람들은 자기 속한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환경에 의해 습득되어진 지식으로 연상을 일으킨다. 시각적 개념에 있어서 상징적 표현은 전적으로 자의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런 경우 대중을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한계가 생긴다.

3-4. 실험 타이포그래피에서 나타난 상징성

기호와 상징을 해체하여 조형화한 실험 타이포그래피 작품은 시대에 대해 경고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부가하려는 인류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그것은 죽음과 같은 침묵으로 일관된 시대의 그림자를 투영하려는 노력이며 이후 세대에 대한 책임과 담보(擔保)를 전해 주려는 의지의 발현이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특정한 표현의 가치를 상실시키며 일련의 사건 기호를 상징적으로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그림19)의 제임스 빅터의 작품에서 보면 아무렇게나 휘갈겨 쓴 듯한 '인종적 편견'이란 단어의 'C'자는 입 모양을 상징한다. 이를 갈겨 미워하는 인종간의 불화를 입과 이빨로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에는 그의 아픔, 그의 아픔, 그 이 처절한 몸부림이 스며들어 있다.



그림19

41) 박정순, 대중매체의 기호학, 나남출판, 1997, pp. 164-165,

3-5. 부적의 상징성

부적을 황색 바탕에 붉은 색깔로 그린다는 것은 색채상징에 비추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 황색은 광명이며 악귀들이 가장 싫어하는 빛을 뜻한다.

부적에 일, 월과 광자가 많은 것도 이를 비추어 악귀를 물리치기 위한 것이다. 적색은 피·불 등과 대응하며 심리적으로 생명과 감정의 상징이기도 하다.⁴²⁾

붉은 정화하는 힘과 화한 기운을 상징하며 부적의 모양은 그 의도를 짐작 할 만한 것도 많이 보여지며 이러한 부적들은 부주사의 의도적인 표현으로 디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자를 파자하여 부적의 모양이 추상화되면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구별하기 힘든 것이 된다.

부적가운데는 무의식의 상징을 형상화한 것이 발견되기도한다. 그 가운데서도 생생과 죽음, 그리고 초극(超克)을 상징하는 미로(迷路)⁴³⁾ 상징은 우리 나라 부적의 상당수에서 하나의 정형으로 고정된 채 전래되어

오는 듯 하며 이런 미로의 상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종 외문 [(渦紋) : 소용돌이 모양의 무늬.]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며, 인간 마음속의 보편적 행동유형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림 20

그림(21)의 부적은 신룡이 악귀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고 있다. 승리는 이 부적을 소지한 자의 강력한 염(念)에 있다. 강력할수록 신룡이 우주 천기를 모두 지배하게 되므로 놀라운 효험을 낸다는 것을 표현한 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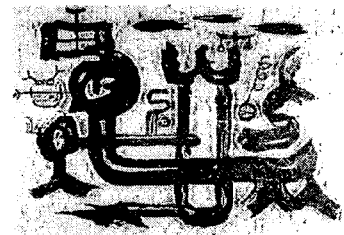


그림 21

로 놀라운 효험을 낸다는 것을 표현한 부적이다.

3-6. 부적의 기호적 암시성

부적의 내용의 구성을 보면 여러 개의 문자가 배치된 하나의 그림이며 암호화된 밀서의 문장으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적은 처음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문자의 한계성을 벗어나 암호화된 비전의 추상화가 되었고, 작위적인 조형성에서까지도 자유롭게 탈피하여 제작되었다.

이와 같이 부적의 형태나 색채는 근원적으로 자연현상과 직결되어 있고 그 상징적 매개물로 영적인 세계와도 메시지가 교환되는데 이를 통해 행복과 재앙의 상황을 조작한다는 것이다. 현대 전위예술의 특징인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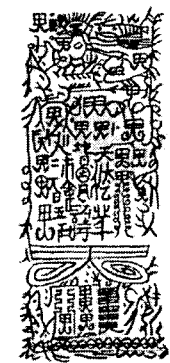


그림 22

미술성과 부적을 비교 설명한다면 '그림이란 붓으로 물감을 천에 묻혀 그리는 것'이라는 고전적인 정의를 다같이 초월하고 있다⁴⁴⁾

3-7. 실험 타이포그래피와 부적의 공통된 상징성

▶타이포그래피나 부적 기호들과 관련된 일부 구문 법적

42)정태무, 부적 강좌, http://www.011-love.co.kr/index2_frame.htm

43)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는 상태. 비유적인 말임

44)이상철, 부적에 대한 정신학적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연구보고서, 1996, p109

성질들은 특정한 의미를 결정한다.

예를 들면 문자들을 반복함으로써 움직임이나 리듬감을 전달할 수 있고, 문자의 왜곡을 통해 기쁨이나 슬픔, 노여움과 같은 심리 상태도 표현하였다.

- ▶ 문자는 문자체 자체로도 충분한 미학적인 표현이 가능 하지만 문자에 특별한 속성을 대비시키거나 대체시킴으로써 어떤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 ▶ 실험 타이포그래피나 부적에서 연상은 글자의 왜곡, 조합, 반복 등에 의해 독특한 형태의 시각적 대상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문자를 그림으로 인식하고 있다.

3-8. 조형적 특징에 의한 유형분류 분석 결과

실험타이포그래피	부 적
추상적, 비정형, 비대칭	구상적, 정형, 대칭
문자의 형태성과 의미성 상징 양분	문자의 형태성 강조
형태적으로 대조적이면서도 아무 제약없이 자유롭게 문자의 한계성을 벗어나 암호화된 비전의 추상화가 되었고, 작위적인 조형성에서까지도 자유롭게 탈피	
단한 체계 내에 단순히 지배받는 대상물이 되기를 거부하고 시간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함으로써 가능해지는 리버럴(liberal)한 사고와 표현을 추구	
문자가 더 이상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나 장식의 기능이 아닌 중요한 시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표현	
시각적 표현을 통해 사상, 감정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며 연상적 의미작용이 강조	
주관적인 성향의 직관적, 유희 표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작품을 형성	

4. 결 론

부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여 왔으며 현대문명이 오랜 역사 발전의 결과라 한다면 부적 또한 그러한 모습을 지닌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특징으로는 철저하게 기층문화의 전통을 유지 계승하여 오늘에 전해오고 있는 타임캡슐과도 같다고 할 수 있다.

부적이 주술적이거나 미신적이라는 신앙적 관점으로부터는 문화적 관점에서 상징성, 언어성, 연상성 등의 특질을 가진 실험적 조형형태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요약하면

1. 부적에서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사상적 배경들 즉 다다,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미래주의, 구성주의, 입체주의 등 그 형태 안에서 그 배경들의 유사한 이념들과 형태적 표현을 찾아 낼 수 있었다.
2. 부적은 일반적 견해로 생각하는 실험 타이포그래피 만큼이나 논리적이며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다. 또한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다른 기호나, 상형문자, 그림 및 유사단어의 결합과 조합을 통해 상징적 표현성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3. 각각의 요소들은 상징적 심볼 및 연상성, 글의 해체성 등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타이포의 실험적 성격을 더욱 실험적으로 표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는 부적에서 배워야 할 해체와 구성작업 회화적 타이포그래피 관점으로도 눈여겨 볼 점이 많았음이 관찰되었다.

디자이너가 한 국가의 문화적 표현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부적의 형태적 물성이 가지는 시각 이미지에 대한 재인식과 그 가능성에 대한 모색(摸索)으로 서구적 고정된 틀을 벗어나 우리의 문화와 정서에 맞는 디자인과 타이포그래피의 표현 영역을 확장하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원유홍, 실험 타이포그래피의 교육 프로그램연구, 한국디자인학회 36호, 2000
- 원유홍,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연대기, 상명대학교 디자인연구, 1999
- 필립B맥스, 월간디자인 편집부 옮김, 그래픽 디자인의 역사, 월간디자인 1985
- 신창우, 해체주의 경향의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학회, 34호, 2000
- Carl G. Liungman, Dictionary of Symbol II, W.W. Norton & Company, 1991,
- Leroi-Courhan A. Prebistoire de l'aetoccidrntal, Mazenod, 1978,
- The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2001.
- 백진경·신수길, 디지털 시대의 타이포그래피에 나타난 전통시각에 대한 역설 - 데이비드 키슨의 작업을 중심으로, 디자인학회 40호, 2001
- 안상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34호, 한국디자인학회, 2000
- 조르주 장, 이중인용김, 문자의 역사, 시공사, 1999
- 조르주 장, 김형진용김, 기호의 언어, 시공사, 1998
- 이재운, 이재운의 민속기행, 녹진, 1991
- 움베르트 에코, 조형준 역, 열린 예술작품: 카오스모스의 시학, 새물결 1995
- 박우찬, 한국미술사 속에는 한국미술이 있다 재인 2000
- 조열·김지현, 형태지각과 구성원리, 창지사, 1999
- 김춘일·박남화, 조형의 기초와 분석, 미진사 1996
- 데이비드 A. 라우어, 이대일 옮김, 조형의 원리, 예경, 1996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 의식 창지사 1991
- 김민기, 부작미술의 역사와 사상 국립민속박물관 연구보고서, 1996
- 한정환, 현대사회에 있어서 부적에 대한 인식 국립민속박물관 연구보고서, 1996
- 신상철, 부적에 대한 정신의학적 이해 국립민속박물관 연구보고서, 1996
- 金鏞近 외, 《世界の歴史》. 世紀出版社, 1978
- 李時珍, 《本草綱目》 金石部 第八卷
- 이열적 권상로역 《 國遺事》, 동서문화사, 1977
- <http://boojuk.com/amulet.htm>, <http://www.4j8j.com>
- <http://www.011-love.co.kr>, <http://myhome.cjdream.net>
- <http://www.sanka.co.kr>, <http://www.soohosin.net>
- <http://www.2rebels.com>, <http://www.bermuda.ch>
- <http://www.geocities.com>, <http://www.emigre.com>